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삭개오와
예수님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anie Forest
각색: Ruth Klassen
번역: Helen Hwa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BFC
PO Box 3
Winnipeg, MB R3C 2G1
Canada

©2015 Bible for Children,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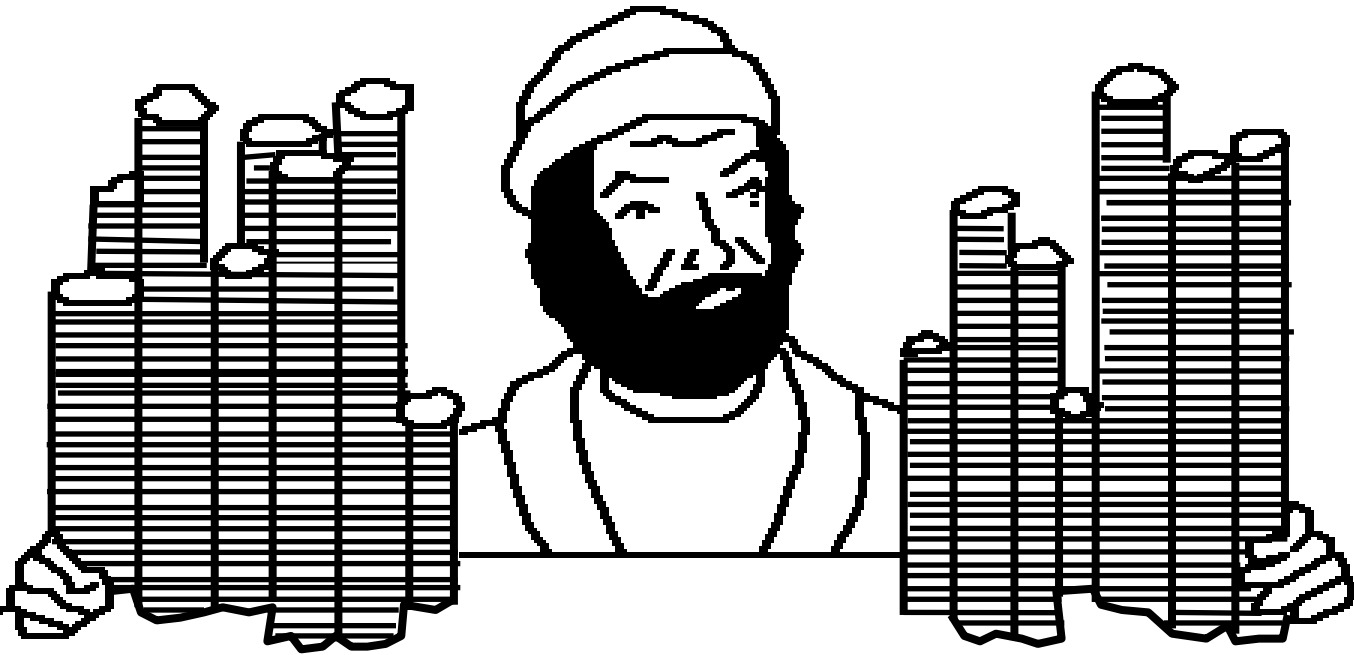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어느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이 도시
는 오래 전에 여호
수아에 의해
파괴되었었지만
다시 재건되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의 한 사람이
삭개오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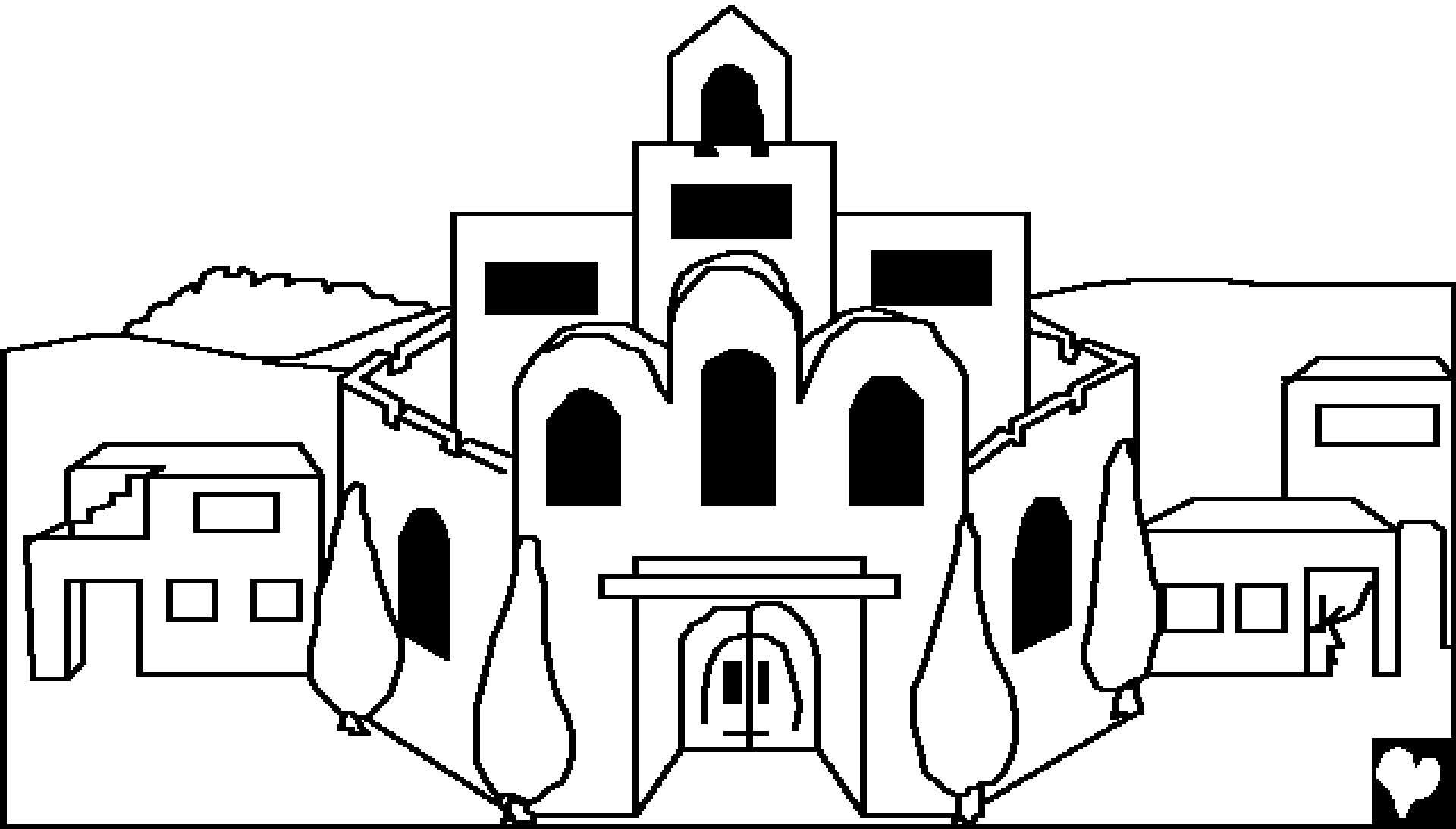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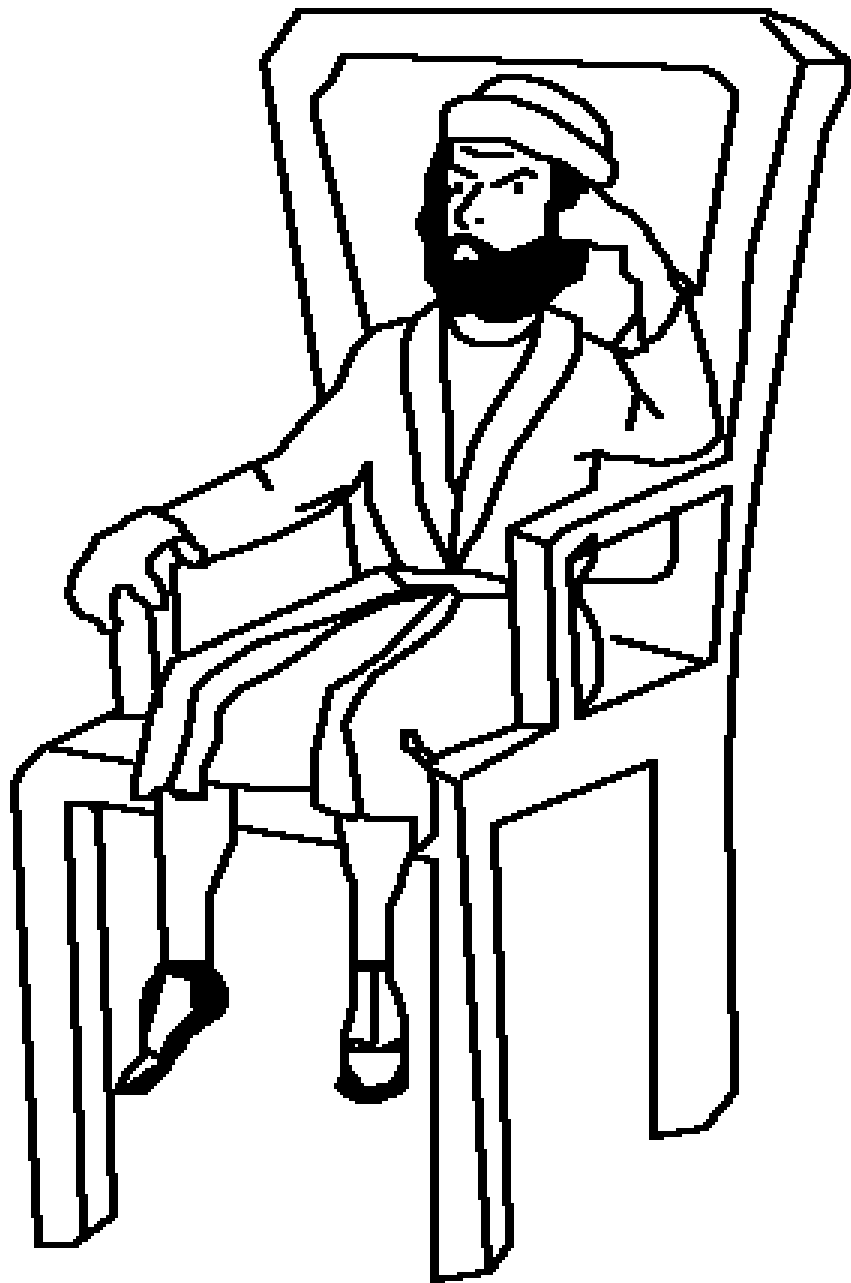
아마도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걷는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여리고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일부는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독차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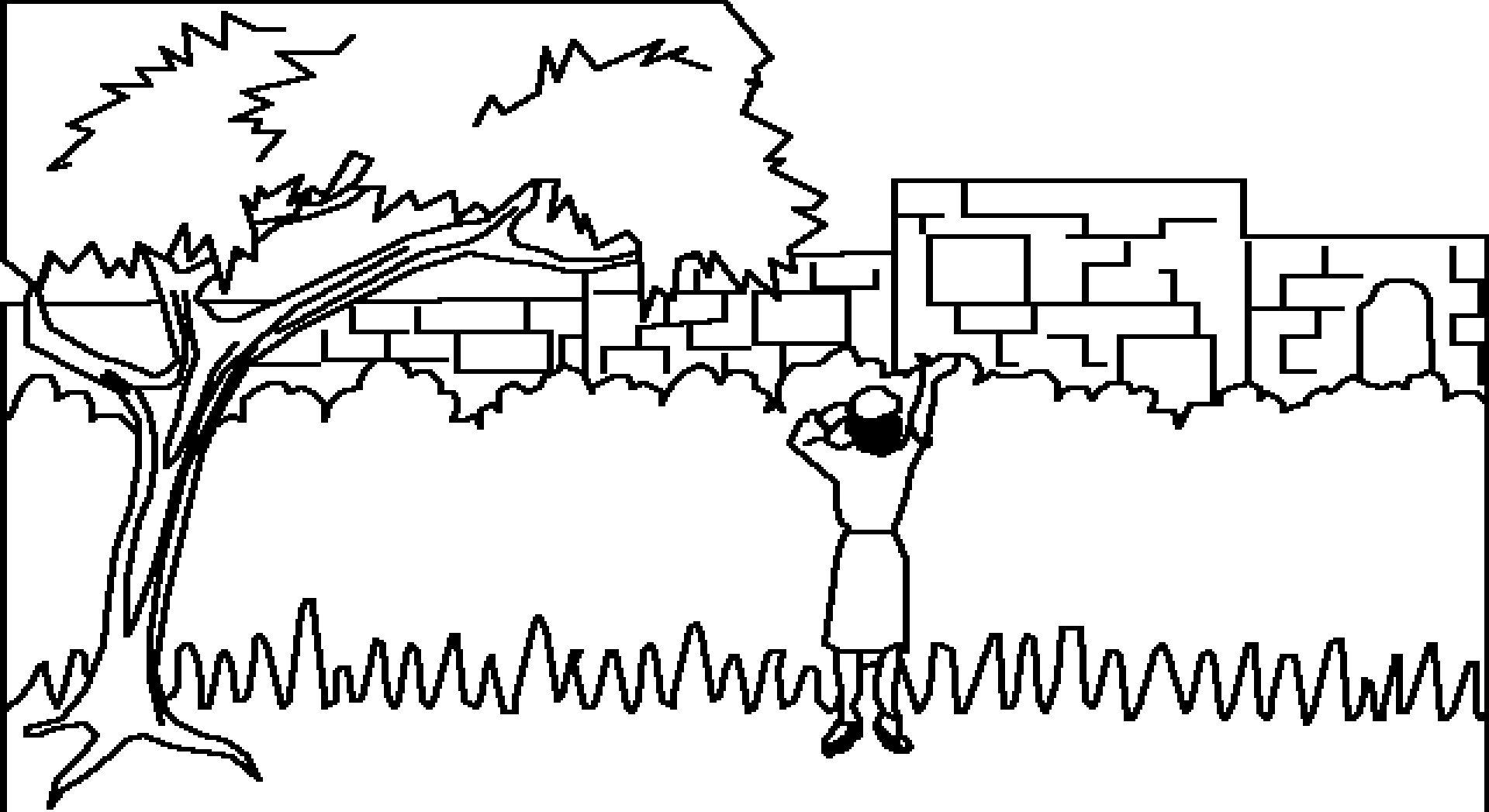


그래서 세리 삭개오는 아주 부자였고 마을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아주 작았어요.
물론 돈이 적은 게 아니라
키가 작았지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만큼 키가
자라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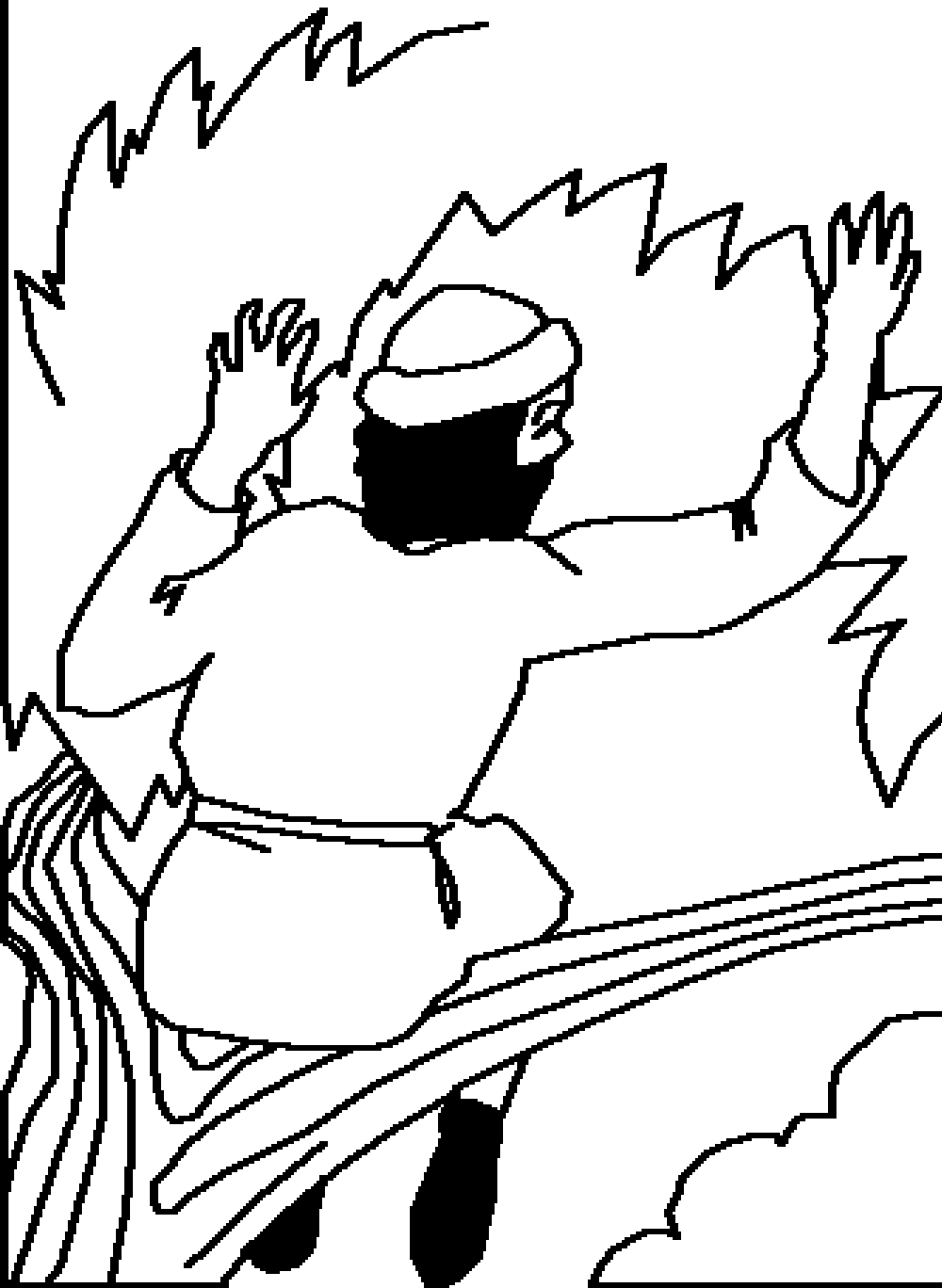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을 간절히 만나길 원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자신보다 키가 컸지요.





이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그 길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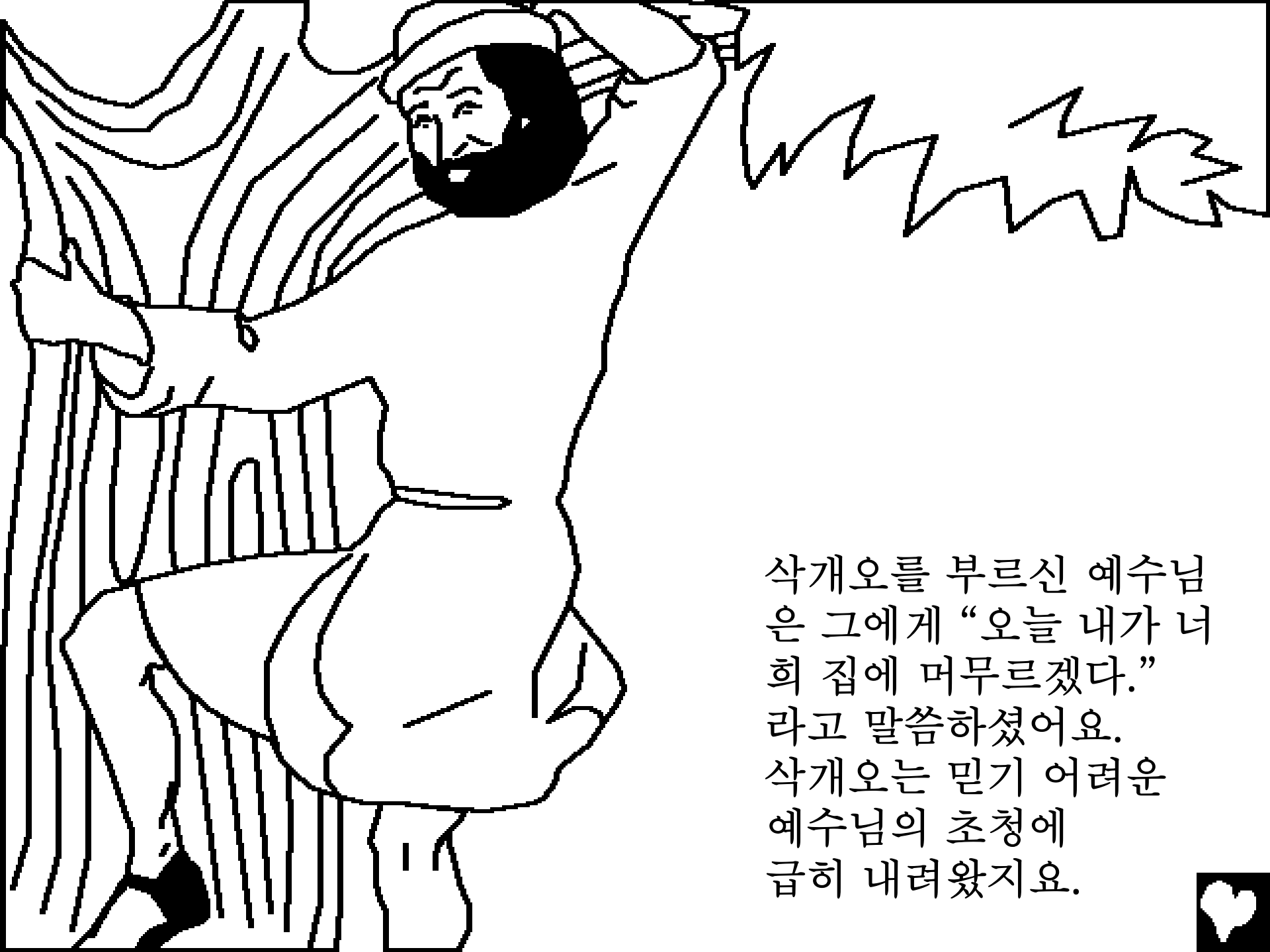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서 나뭇가지 사이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아주 좋은 자리를 잡았군!
예수님을 볼 수 있겠네, 예
수님은 나를 보지 못하시겠
지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 오너
라.” 키 작은 세리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
무 밑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지요. 예수님이 그를
정말 부르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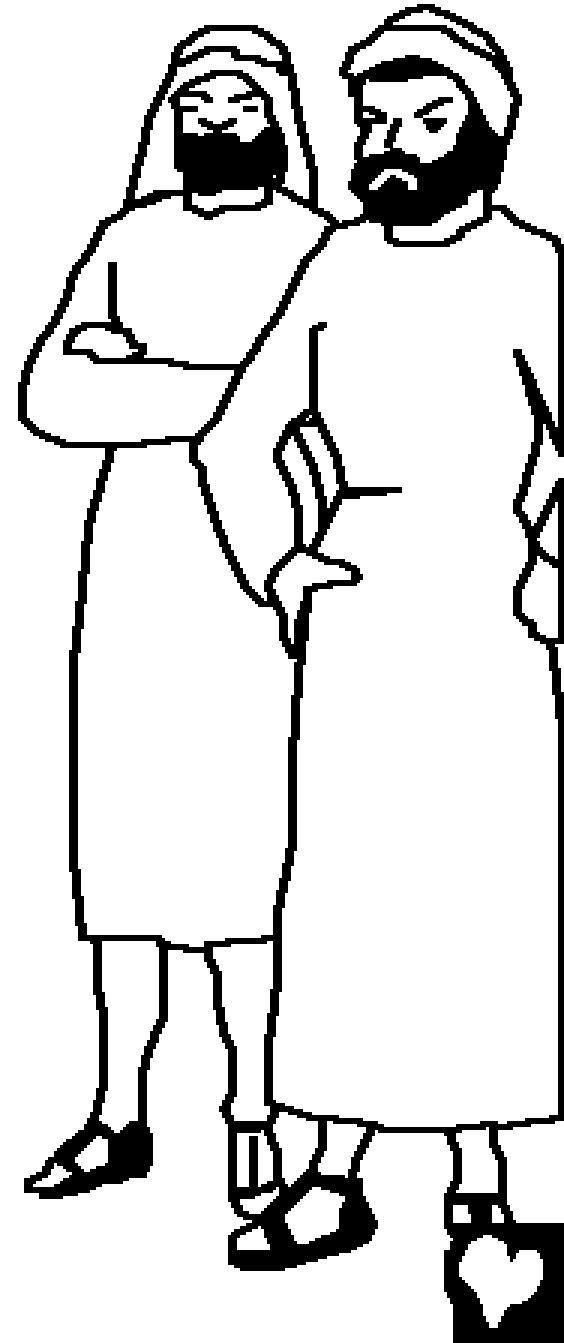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너
희 집에 머무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초청에
급히 내려왔지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 삭개오는 너무 흥분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죄인의
집에 가서는 안 된다고
수근거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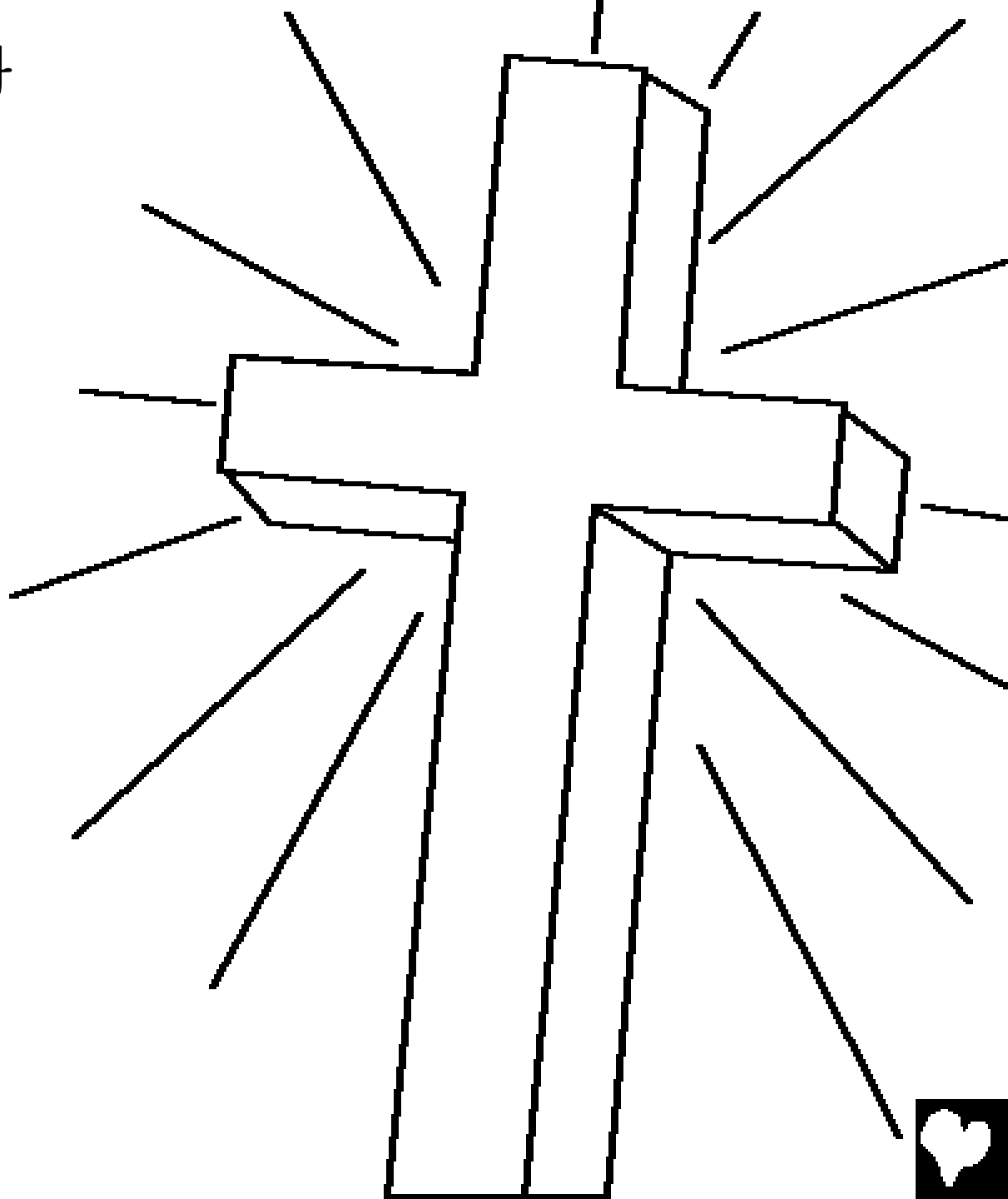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온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자 삭개오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요.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변상하겠어요.” 라고 다짐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변화
된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바르게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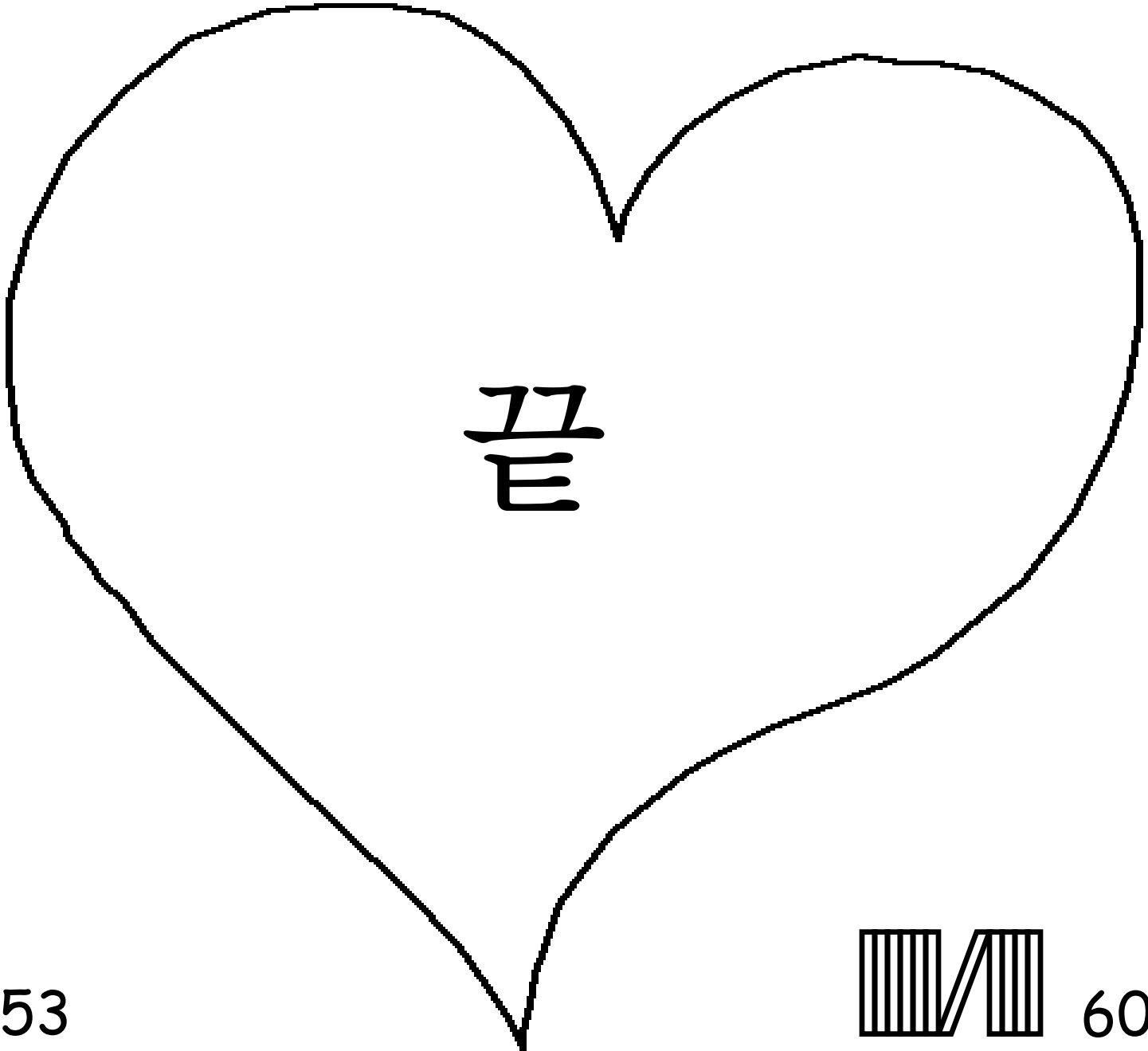
삭개오와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53

60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